



정낙추 태안문화원장

- 시인, 농부, 소원면 모향1리 이장
- 전통소금 '자염' 복원
- 충남작가회 회원 『흙빛문학』 대하소설 『품의 역사』 연재
- 시집 『그남자의 손』 『미움의 힘』
- 소설집 『복사는 울지 않았다』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마을은 주민들의 통합된 생활세계입니다

“마을은 주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생활세계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은 경제나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의 개별적 범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총체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을만들기가 단순히 특정 분야별로 전문화시키거나 일시적인 사업 성과 창출에 매달리지 않고 보다 통합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마을만들기의 과정이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또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관심 분야로 연결되어 나갈 때 통합성은 증대됩니다. 또 주민들의 생활세계가 분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활동들 사이에 긴밀히 소통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운동으로서의 마을만들기에서만 아

니라 정책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주민들의 통일된 생활세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행정의 ‘칸막이’로 인해 생활세계가 분리되지 않도록 특히 배려해야 합니다.”

위 글은 2015년에 전국의 마을활동가들이 모여 작성했던 ‘전국 마을선언(초안)’의 제1장 5조의 내용입니다(경어체로 수정). 2019년 새해에 이 조항을 다시 한 번 들고 나오는 것은 최근의 여러 동향들이 위기이면서 기회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우리들 농촌 마을만들기 활동이 정책과 행정 사업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움직이다보니 행정의 칸막이가 민간의 칸막이로 나타나고, 우리들 의식 속에서도 이런 분단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마을만들기 활동가나 공무원, 전문가, 심지어 주민들에게조차 ‘자기검열’ 같이 생활영역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화’란 이름으로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서로의 연대와 협력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네요. 고립되면 망한다, 흩어지면 죽는다, 칸막이를 극복하라!!! 너무 과격한가요? 농촌 마을이 작지만 튼튼한 삶터가 되자면 이런 관점이 중요하다 봅니다.

2019년의 농촌마을정책에서 중요한 몇 가지 변화

몇 가지 중요하고 의미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충남도청 농정국의 조직개편을 통해 농촌활력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농촌마을지원과와 농업정책과가 업무를 주고받으며 농촌정책의 주무 과를 신설한 셈입니다. 기존에 마을만들기와 분리되어 있던 체험휴양마을, 6차산업 업무가 합쳐져 ‘한 배’를

타게 되었고, 서로 협력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의 조직체계와 인근 전북도 농림국의 사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도청 행정의 업무조정과 조직정비는 작지만 큰 변화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민간단체나 중간지원조직이 협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입니다. 나아가 시군 자치단체에도 ‘하나의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농촌정책, 지역정책의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 영역들이 서로 연계, 협력하지 않으면 현장의 성과 도출이 어렵다는 반성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청양군은 농촌공동체과를 신설하면서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 업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참여예산제, 푸드플랜, 공공급식(학교급식), 농촌 마을만들기, 체험휴양마을, 6차산업 등을 모두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농촌 자치단체 중에서는 매우 선진적인 시도라고 평가받고 있고, 앞으로 큰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공주나 논산, 보령, 서산 등에서도 정책의 수요자인 주민 입장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충남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이미 10개 시군에서 설치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이 4개(천안, 홍성, 보령, 예산)이고, 나머지는 아직 행정직영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시군(공주, 부여, 당진, 서산, 계룡)도 작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상태라 내년까지는 전체 15개 시군 모두에 중간지원조직이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에 비해 늦게 시작했지만 제도적 정비는 매우 빠른 셈이고, 최근에는 경남이나 강원, 충북 등에서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남도청 공동체정책관실에는 올해부터 공동체지원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농촌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공모사업은 애당초 출발부터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이 통합형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규 공모하는 공동체지원센터도 이런 통

합형의 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장려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간의 협력이 가능한 시군이 통합형의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신청자격이 될 것입니다.

농식품부의 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도 제도적 정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0~120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반성이 배경입니다. 충남도청에서는 작년부터 광역계획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했고, 현장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구상도 진행중입니다. 지역의 자율성을 가장 존중한다는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제도적 정비가 진행중입니다. 작년의 시행착오를 극복하면서 ‘사람과 조직’에 대한 투자가 핵심이란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올해는 공모과정에서부터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농촌마을정책 영역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결과까지 좋으리라는 낙관은 쉽지 않네요. 문재인정부가 자치분권의 방향에서 조직권과 재정권을 지방으로 이관하겠다고 했지만 속도는 매우 느리고, 스마트팜이나 생활SOC와 같이 유행성 정책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발 딛고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 활동가들이 대오각성하며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큰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자”가 우리의 당연한 슬로건입니다.

이번 호의 특집 주제는 ‘마을 공동체 복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은 주민들의 생활세계로 기본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마을만들기의 관점입니다. ‘이주의 자유’도

있지만, 마을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먹고사는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태어나고 성장하여 죽는 날까지,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상부상조의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선7기 충남도 핵심 정책 역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에 대응하는 ‘복지’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청년이 살기 좋은 충남’, ‘여성이 행복한 충남’ 등을 표방하며 각종 복지 서비스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농촌마을의 복지는 어떠할까요? 행정의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우리 마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동체적 복지망이 없다면 오래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농촌은 경제적으로 못살아도, 행정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웃 주민과 상부상조하며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동체 정신 속에 근본적인 복지의 개념이 들어있다 봅니다.

우리들의 농촌 마을만들기는 결국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주민자치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살기 좋아 즐거워하니 도시로 떠난 자식이나 친인척들이 너도나도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자는 귀향운동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활동을 통해 이렇게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 ‘돌아오는 농촌’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행정리 단위에서 스스로 할 일도 있고, 읍면 생활권 단위에서 서로 협력하여 풀어야 일도 있습니다. 상부상조의 지역복지망을 갖추는 것이 결국 마을만들기의 최종목표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마을독본 4호의 특집 주제는 ‘마을공동체복지’로 잡았습니다. 김영란 교수님은 “공동체복지와 행정복지, 시장복지 :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란 도

발적 제목으로 복지의 개념을 구분하면서 공동체복지의 의미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이 많지만 마을공동체복지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글을 기고해주셨습니다. 조미형 박사님은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형 농촌복지”의 필요성을 소개하며, 실천방안까지 제안해주셨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참여예산제 등에 관심을 가질 것도 주문하시네요.

김혜경 교수님은 “충남 마을공동체복지의 사례와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충남 농촌복지의 현실을 진단하고, 특히 노인복지 영역 중심으로 사례와 시사점을 정리해주셨습니다. 다만 충남에 사례가 너무 없어 정리를 잘 못해 미안해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사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장의 책임이 오히려 큰 셈이지요.

최문철 사무국장님은 “이웃과 마을이 서로 돌보는 건강한 마을공동체”란 제목으로 홍성군 홍동면에 있는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과 동네의원의 역사와 현재, 지역복지 구상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활동하시는 분의 글답게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김기태 소장님은 “지역농협의 종합복지센터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란 글에서 제목처럼 지역농협의 책임을 추궁하며 ‘999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농촌복지 영역에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의 농협이 선두주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글로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마을독본』의 단골 필자이신 복권승 대표님은 청양군 청남면 왕진보건진료소 사례를 소개해주셨고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 원고까지 기고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 오지마을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마을공동체복지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농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얼마나 복잡고 ‘칸막이’가 많은지 한 장의 그림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은국제학술행사, 대화마당, 충남대회 등은 계속됩니다

이번 특집 주제에서 다루는 마을공동체복지에 대한 논의는 어쩌면 이제 막 시작단계라 보입니다. 정책 칸막이 속에서 각각 다루어져왔기 때문입니다.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이처럼 단절되어 있는(그렇게 느끼는) 영역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을공동체복지의 논의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면서 다루어가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으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자세한 내용은 ‘충남마을넷’ 밴드나 페이스북 등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센터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는 셈입니다.

먼저, 올해 『마을독본』은 편집위원회도 재구성하여 분기별로 계속 발행할 것입니다. 특집주제는 마을교육공동체(봄호), 마을후계자(여름호), 읍면자치(가을호), 마을교통(겨울호)로 잡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주시고, 필자로도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은 글이라도 현장의 목소리가 적다는 것을 항상 아쉽게 생각합니다.

둘째,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에서는 작년에 이어 『마을독본』 특집주제를 소재로 사례발표와 쟁점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실천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마을공동체농업(4.26), 마을청년농업(5.31), 마을공동체복지(6.28), 마을교육공동체(7월), 귀향귀농귀촌(8.30), 읍면자치(10.25) 등으로 주제와 일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작은국제학술행사의 일환으로 1월 25(금), 26(토)일에 일본에서 지역복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충남을 찾아옵니다. 1.26(토) 오전에는 홍성군 장곡면 오누이센터에서 ‘마을만들기와 지역복지의 융복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열

립니다. 각각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일본 사례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2~3회의 작은국제학술행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올해 6회차 충남대회는 천안에서 열립니다. 아직 조직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지만 예년의 관례에 따르자면 11월 7~8일에 열릴 것입니다. 올해 체험휴양마을의 가장 큰 축제인 고향마실 페스티벌도 가을에 천안에서 열릴 예정이라 서로 협력하는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연계하면 매우 의미있고 성과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광역 단위의 다양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특히 노력할 것입니다. 마을만들기협의회, 중간지원조직, 수탁법인, 사무국장 등 다양한 층위에서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광역의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농촌 마을만들기는 상호협력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주 모이기는 힘들지만 모였을 때는 제대로 논의하여 ‘바쁜 사람 더 바쁘게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복 농사 많이 지으시고, 서로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낙추 만평 001

편집자의 글 002

014 [희로애락] 마을 활동가의 경험담
그저 ‘고맙다’는 얘기가 듣고 싶었다 박범진

022 [특집] 마을공동체복지 : 요람에서 무덤까지, 농촌복지의 길
공동체복지와 행정복지, 시장복지 :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김영란
032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형 농촌복지 : 마을리더에게 제안하다 조미형
039 충남 마을공동체복지의 사례와 시사점 : 농촌복지의 새로운 가능성 김혜경
049 이웃과 마을이 서로 돌보는 건강한 마을공동체 :
홍성 홍동면의 지역복지 구상 최문철
058 지역농협의 종합복지센터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김기태
066 보건진료소, 오지마을의 복지와 문화 구심점 :
청양군 왕진보건진료소 사례 복권승

[지상중계]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078 [제7회] 마을자치규약 I “마을규약 실태와 우수사례 공유”
095 [제9회] “귀농·귀어·귀촌과 농어촌 마을 활성화”

[든든한 친구] 우리 지역 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120 주민중심의 건강한 공동체,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아산시 공동체지원센터
123 누구나 쉽게 다가가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논산시 희망마을건설과 마을공동체팀
127 마을을 통해 배우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 소개] 우리 마을이 달라지고 있어요
134 대화와 소통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아산시 도고시전권역
138 3대가 살고 싶은 논산시 채운면 야화1리 돌고개 솟대마을
143 갈등의 목소리에서 이제 행복한 목소리 마을로,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마을

148 [마을의 맛과 멋] 문화로 읽은 마을 이야기

[지원센터 활동보고]
158 충남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하반기 직무연수
160 충남 마을만들기 선진지 견학 in 태안
162 제5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in 예산

[참고]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현황 및 연락처 164